

2027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 등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.

< 보도 내용 >

- 2026.8.24. 중앙일보는 「내년 820조 ‘수퍼 예산’…역대최대 90조 늘려 민생·미래 투자」 제하의 기사에서,
- “정부가 내년 편성할 예산이 820조원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. 총지출 증가율은 12%대로 올해(8.1%)와 비교하면 역대급 수퍼 예산이라는 평가”라며,
 - “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은 올해와 내년을 합해 약 200조원으로 예상되고,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51.6%에서 내년 48%대로 떨어질 전망”이며,
 -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및 출산·양육급여 통합,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, 청년미래적금·청년문화예술패스 확대 등과 함께 교육교부금 및 기초연금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< 정부 입장 >

- 정부는 현재 '27년 예산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, 총지출·국가채무 및 개별 사업의 지원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기획예산처 예산정책과	책임자	과 장 김정애 (044-214-2330)
		담당자	서기관 하치승 (hcs017@korea.kr)